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9 “우리도 뛰다”



서정치과 직원들이 오는 3·1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환자들 건강 지켜주려면 우리들부터 건강해야죠”

### ■ 서정치과

“환자의 건강지킴이를 하려면 우리부터 건강해야죠”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서정치과’ 직원 45명이 오는 3월 1일 열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 건강한 삶을 위해 달린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이 개인 이념인 서정치과는 지난 1990년 개인 이후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독거노인 돌봄, 무료 진료 서비스 등 개인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 앞장

서정치과 직원들의 활발한 봉사활동은 각종 스포츠로 다져진 건강한 체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특히 올해로 3회째 참가하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한 서정치과 직원들의 마라톤 예찬론은 끝이 없다.  
김재곤 원장(46)은 “올 해로 3회째 참가하는데 이제 서정치과의 1년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며 “3·1절 마라톤 참가를 계기로 직원들의 결속력과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서정치과 직원들의 마라톤 사랑은 김재곤 원장의 부추김으로 시작했다. 김원장은 광주 학강초등학교 6학년때인 지난 1974년 3·1절 전국마라톤대회(당시 광일마라톤대회)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주였다.  
김 원장의 가능성을 알아본 담임교사의 조언으로 무등중학교에 스카우트 됐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눈물을 머금고 마라톤의 꿈을 접어야 했다.

### 김재곤 원장 마라톤 마니아

김원장은 “직원들에게 마라톤을 하자고 했을 때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마라톤 입문 이후 줄곧 매일 아침 30~50분 정도 러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으며 예전의 페이스를 회복하면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육신에 건전한 정신”이 갖든다는 신념을 가진 김원장은 병원내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까지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인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고 있다.  
김창기(34) 의사는 몇해전만 해도 매일 1시간씩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다졌으나 최근 이런 저런 이유로 운동을 소홀히 해

이번 3·1 마라톤 대회 출전을 계기로 다시 마라톤과 재혼을 할 계획이다.  
홍경모(54)기획이사는 매일 복구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을 20바퀴씩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있으며 마라톤 출전은 처음이지만 젊은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장을 과시할 생각이다.  
양인호(35)사무장은 일주일에 2회씩 헬스클럽에서 체력을 다져와 1년 4회 정도 마라톤에 출전할 정도로 실력파로 올해는 등위 도전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육상선수 출신인 정지현(23)씨와 중·고교때 단거리 육상선수였던 김아란(23)씨는 선수출신의 명예를 걸고 입상은 어렵더라도 서정치과 직원을 가운데에선 1위를 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 세번째 출전...상위권 도전

조기축구회 활동에 열심인 이정훈(30)씨는 10km에 출전, 50분대 돌파를 위해 최근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  
2회째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던 유지영(여·26)씨는 3·1절 마라톤 출전을 통해 자신의 체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1주일에 3~4회씩 러닝으로 체력을 다져와 이번대회에선 탈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 새해 ‘굿 샷’

### PGA 소니오픈 첫날 6언더 단독 선두

‘완도링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의 부진을 털어 버리고 소니오픈 첫날 단독 선두로 우뚝 섰다.  
최경주는 11일(한국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골프장(파70·7천68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번째 소니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뽑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며 6언더파 64타로 리더보드 맨 위에 자리잡았다.  
화려했던 2007년을 뒤로 하고 지난 주 열린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서

트를 넣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2번홀(파4)과 13번홀(파4)에서는 볼을 번개에 빠뜨리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절묘한 번개샷으로 홀 .5m 이내에 떨어뜨리며 타수를 잃지 않았다. 15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해 공동 선두가 된 최경주는 18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왼쪽 번개에 빠뜨렸지만 세번째 샷을 1m 이내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 단독 선두로 첫날 라운드를 마쳤다.  
올 시즌 투어 카드 지키기에 나선 이상욱(24·코브라골프)은 3언더파 67타로 공동 14위에 자리했고 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양영은(36·테일러메이드)은 1언더파 69타, 공동 52위로 첫날을 마쳤다.

# KT 프로야구단 창단 백지화

## 이사회 “기업 이미지 도움 안된다” 전면 철회

KT가 프로야구단 창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KT는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검토해왔던 프로야구단 창단 방침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다른 구단들의 반대와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협상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으로 인해 프로야구단 창단이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초부터 운영난에 빠진 현대 야구단 매각에 나섰던 KBO는 농협중

가치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사내의 반대 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또한 창단 추진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이 나돌면서 제기된 갈등과 잡음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했다고 KT측은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KBO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야구단 창단을 검토한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야구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함께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라며 “여러가지 잡음으로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백지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KBO가 다른 조건으로 제안을 해도 더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리그 축소 운영 등 18년 前으로 후퇴 위기

### ■ KT 참여 거부 파장

KT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을 추진하다 끝내 리그 참여를 거부하면서 올 시즌 관중 축소와 현대 유니콘스 공중분해에 따른 선수 이동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즌 개막 전까지 현대야구단의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올해는 종전 8개 구단에서 7개 구단 체제로 리그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일단 구단별로 종전 126경기에서 120경기 이하로 줄면서 전체 경기 수도 504

경기에서 84경기 감소한 420경기로 축소 재편된다. 7개 구단으로 운영됐던 1990년 이전 상태로 퇴보하는 셈이다. 경기 수 감소 여파로 관중 동원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410만429명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1996년 이후 11년 만에 400만 관중시대 복귀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 수가 줄어들며 흥미도 반감돼 총 관중 수는 300만명 이하로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리그 불참에 따른 위축 여파가 다른 구단에도 영향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최경주가 1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 프로골프 소니오픈대회 1라운드 18번홀에서 번개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환 체력 지도담당

### 김보상 트레이너 영입

베이징올림픽 수영 금메달을 향해 호주 시드니에서 맹훈련중인 ‘마린보이’ 박태환(19·경기고)이 김보상 스포츠 전문 피지컬 트레이너를 새로 영입했다.  
박태환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스피도는 11일 “웨이트 트레이너로 축구와 배구 선수들을 전문지도해 온 김보상씨를 선임해 유능한 전 경연대표 감독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 감독과 김 트레이너는 지난 4일 시드니 캠프에 합류했다. 전담 물리치료사는 아직 구하지 않았고 현지 물리치료사가 당분간 박태환을 돌보고 있다.  
김 트레이너는 박태환의 웨이트트레이닝을 지도하며 근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던 동작 이후 물 속에서 차고 나올 때 스피드를 살려주는 ‘물관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리근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박태환은 전담팀이 어느 정도 꾸려진 상태에서 지구력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전에는 6시부터 8시30분까지 시드니 올림피아쿠아티센터에서 토니 쇼 코치가 이끄는 현지 클럽 선수와 함께 주어진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을 한다.  
초점은 지구력 강화와 스타트 기술 보완에 맞춰져 있다. 이는 전지훈련 초기 박태환이 쇼 코치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보완을 부탁했던 부분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웨이트트레이닝에 열중하고 수요일만 야외에서 달리기를 한다. 오후 훈련은 4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골프 코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골프 샷 시범기회	골프 장 시범기회
관 주 3,450	총 실비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승 주 8,200	도보양 2,100

문의 (062)351-0095